

신세대의 등장과 세대간 갈등

이 명 찬*

서울시립대 강사

이 글은 오늘날 신세대라는 이름으로 형성되고 있는 젊은층의 생활문화와 사회의식을 살펴보면서 그 발생배경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세대 문화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기성세대에 돌리고 있다. 이제 신세대 문화는 지금까지와 같은 무지향성, 가치혼돈, 이기주의적 모습이 아니라, 기존 사회질서 위에서 새로이 가다듬어진 이념태 위에서 발전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세대의 등장

서태지, 저간에 우리 사회의 한 중요한 이슈를 만들어내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젊은 랩 가수의 이름이다. 까마득히 세상을 잊고 사는 은자(隱者)거나 이젠 뒤돌아볼 일만 남은 노인들을 제외

* 필자는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이주대·서울시립대 강사로 있으며, "1930년대 후반 한국 현실주의 시의 내면화 과정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하고서, 목하 세상에 눈뜨고 살아가는 시정인들 처놓고 이 이름을 모르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경이의 눈으로든 못마땅한 표정으로든 간에, 이들이 제공하는 그 열정적인 춤과 노래, 싸이키델릭한 조명과 괴성으로 범벅이 된, 범벅이 되어서 곧 터져나올 듯한 무대를 잡은 TV 화면을, 한번쯤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또 과연 몇이나 될까?

모르는 사이 우리 사회는, 이들의 그 충격적이고 당당한 음악에 취하거나 동떨어져서, 혹은 그들을 소개하고 부풀리고 올귀먹으려는 장사속에 판지질려 넘어지기도 하면서, 이 소위 신세대라는 이름의 괴물(?)과 정면으로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건대, 흔히 '서태지 신드롬'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태가 연예계의 흥역으로 그쳤다면 별다른 관심의 확산없이 스포츠 신문의 가십란에서나 조금 다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았다. 이 현상이 우리 사회 일각의 한 소동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일기 시작한 새로운 징후들과 연계하여 그 기세가 수그러들기는 커녕 사회문화 일반의 세대론으로까지 확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서태지 사태가 한 개인의 명민성에서 비롯된 단발적 문화 소비 행태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좋은 것으로 보는 그 반대이든 간에 1990년대, 더 정확히는 1993년을 돌출시킨, 우리 사회변화의 한 중요한 표징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미리 말해 두거니와 필자의 이러한 언술은, 그 밑바탕에 우리 근대사를 밀고온 주동축으로서의 청년문화 내부에 근본적

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렇지 않다고 보기에는, 락카페(Rock Cafe)·노래방·압구정동·로데오거리·오렌지족 등으로 표방되었던 저 도저한 소비 지향의 젊은 물결, 받는 만큼만 일을 하고, 집에 투자하기보다는 자동차를 먼저 사며 상사가 있건 없건 정해진 퇴근시간이면 눈치볼 것 없이 챙겨들고 퇴근한다는 직장에서의 새로운 풍속도, 거년부터 문학계에서 불일듯 나타나 소위 표절 시비로까지 번져갔던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 영상매체 특히 영화에 대한 젊은 문화인들의 열광,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그 주변 문화에의 향수 등이 보여주는 청년문화의 질적 변화가 너무나 전반적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의는 당연히, 이 시대에 이토록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문화변모의 원인, 그것이 유독 신세대라는 딱지로 스스로를 표나게 변별하는 이유와 그러한 변모가 가져올 우리 문화에의 득과 실을 따져보는 것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세대를 변별하는 기준과 한계, 수위 신세대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함의 및 그 구성 연령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전적인 정의로 세대라 함은 대개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한 대(代)'라는 의미로서 어린아이가 자라 다시 세대를 이룰 때까지의 약 30년을 지칭하는 생물학적 연대 구분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연대층, 즉 같은 시대에 태어나 공통적인 사고방식과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회학적 의미이다.

'서태지 사태'는 한 개인의 명민성에서 비롯된 단발적 문화소비행태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좋은 것으로 보든 그 반대이든 간에 1990년대 우리 사회의 한 중요한 표징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 분야에서 젊은층의 문화가 질적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근대사를 밀고온 주동축으로서의 청년문화 내부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세대를 규정하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에 기댈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 대상인 신세대를 조건짓는 요소를 자연스럽게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를 통해서만 결혼과 출산이 세대 구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후자를 통해서만 동일 세대규정의 요건이 시대적 특정 이념

태의 공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를 때, 다소 상식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세대란, 30대가 대개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연령층이란 점에서 그리고 10대는 아직 사회적 공동 이념태를 자각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에서, 20대 주축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사회사적 의미 부여 없이 단순한 연대기적 관심으로 지금의 20대를 규정한다면, 대개 1970년 전후에 태어나 1980년대를 10대의 나이로 보내고 바야흐로 문민의 이 1990년대를 화려한 청춘으로 맞고 있는 연령층에 해당한다. 그들이 누구인가? 이제 그 속내를 들여다 볼 차례가 되었다.

신세대 문화와 사회의식의 형성 배경

지나간 모든 세대 가운데 한때 신세대가 아니었던 세대가 어디 있을까? 또한 그러한 신세대 가운데 비록 드러내 놓고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할 망정, 그들의 아버지, 구세대를 부정하지 않고서 스스로의 동류 의식을 구체화했던 세대가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어반복적 연대기를 통틀어 유독 1990년대의

신세대가 그들만의 세대 의식으로 뚝뚝 뭉쳐 특별히 돌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기왕에 존재했던 신세대론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사를 일별해 보면 당연히, 신세대 논쟁이 전혀 전에 없던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대 문화 초기에는 모든 분야의 전문성 미비로 인해 모든 신세대 논쟁은 대개 문필업에 종사하던 작가들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도 193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것과 전쟁 이후에 행해졌던 것들은 지금도 그 의미가 계속적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

1990년대의 신세대가 그들만의 세대 의식으로 뚝뚝 뭉쳐 특별히 돌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순문학 내적인 현상도 아니며 무슨 특별한 정치사회적 이슈아래 대타적으로 결집된 이념 공동 세대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자가 그 이전의 이념 대립에서 기인한 창작 질곡 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그리고 후자가 6·25 이후의 정신적 불모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

나타났던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이 전면적 세대론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문학 내적인 현상이었다.

1960년 이후 우리 근대사는 또다른 유의 세대론과 만나게 되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커다란 정치적 사건들과 연계되어서 발생했다. 4·19세대, 유신세대, 5·18세대 등의 세대 인식에서 보듯이 이것들은 전부 한국정치사의 파란과 굴곡이 만들어낸 일종의 선(先) 규정적인 세대론들이었다. 즉, 각 시기에 속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욕구나 동의에 의해 세대론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각 시기를 지배하는 정치구조의 폭력성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항하는 힘의 중심으로서 젊은층이 결집되면서 대타적으로 동질적 세대 인식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렇게 생겨난 세대 의식은 일종의 강제적 규정력을 지니고 있어서, 각 시기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동의를 선점하였고, 때문에 구성원들은 내적 갈등이나 이탈없이 그저 편안히(?) 혹은 떳떳하게 스스로를 그 세대 의식에 귀속시키면 그만이었다. 나아가서 각 세대 구성원들은 사회의 구세대로 편입되면서부터는 그들이 속했던 시기의 세대 의식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뺄 수 있었다. 그들 세대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의무감과 양심의 염

결성(廉潔性)에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신세대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보아온 몇 가지 세대론의 특징들에서 확연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우선 자명하다. 그것은 분명히 순문학 내적인 현상도 아니며 무슨 특별한 정치사회적 이슈 아래 대타적으로 결집된 이념 공동 세대도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동일 세대의 범주에 스스로를 묶어 넣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의 토대가 있을 것인데, 그들만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변별성과 그것의 사회적, 역사적 발생 원인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이 1990년대식 신세대론의 특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기대어 신세대의 발생 배경을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1980년대 말엽으로부터 시작된 소지구적인 이념의 퇴조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은 우리 시대 신세대론의 근저에 의식의 무방항성이라는 맹점이 깔려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하는데, 신세대 사고가 지닌 일차적 특성으로서의 이 무방항, 무목적성은 그 뿌리가 다름아닌 독일 통일과 구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으로 시작된 냉전 이데올로기의 와해에 닿아 있

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89년 말부터 불어닥친 독일 통일이라는 태풍과 그에 뒤를 이은 공산 종주국 및 위성 국가들의 와해, 그로 인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퇴조는, 2차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지탱해온 극단의 이념 대립의 냉전 체제를 그 근본에서부터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가히 세계사적 지각변동이라 부를 만한 것이었다.

신세대론의 근저에 의식의 무방항성, 무목적성은 그 뿌리가 다름아닌 냉전 이데올로기의 와해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운동권에 그대로 반영되어 다양한 학생문화가 대학가에 새롭게 자리잡도록 만들었다. 생활문화에서 나타난 징후들은 의식적인 면으로까지 확산되어 젊은 작가들의 문화적 부정부주의 사태가 도래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곧바로, 우리 근대사의 정치적 경제적 파행성에 대한 일종의 현실적 대안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은연중이라도 우리 사회 진보적 변혁운동의 논리적 뒷받침이 되어 주던 가치체계의 혼란을 야기했고, 따라서 당연히 운동 역량 내부의 지도원리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진보 운동 진영 내부에서 일어난 지도 원리의 혼선은 일차적으로 운동의 선봉격이었던 학생운동권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이전의 세대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나눠가지고 있던 시대적인 부채의식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를 학생들에게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학생문화가 대학가에 새롭게 자리잡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대두된 대학문화의 새로운 면면들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만은 아니었다. 때마침 허용된 대학생 과외로 인해 물질적 풍요까지 겹쳐지면서, 비록 일부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기성세대가 누렸던 각종의 과소비 형태를 그대로 쫓아가는 정신 부채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다.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학생문화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로 표방되는 신세대 문화의 방향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억되기에 족했다.

신세대의 생활문화에서 나타난 이러한 징후들은 표피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의식적인 면으로까지 곧바로 확산된다. 그 증거로 우리는 신세대의 세태를 자기 작품의 주된 창작 대상으로 삼으며 등장했던 젊은 작가들의 글과 행동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가령 박일문이나 장정일, 이인화 등 대

부분의 신세대 작가들이 발표했던 작품들은 그들 모두 동일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1980년대까지의 한국사회를 지탱하던 이념의 이항대립이 무너졌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그 어느쪽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정신적 자유방임의 사태가 도래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대 인식은 또한 그들의 창작기법에까지 반영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고귀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던 가치나 실천이나 문학적 방법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그들은 또 다른 극단을 향해 치달려갔다. 그것이 외국의 작품이든 남의 작품이든지를 상관치 않고 마음대로 작품내로 끌여들여 패로디화하거나 표절함으로써도 그러한 태도가 얼마든지 새로운 창작기법이며 새로운 창작정신의 표현일 수 있다고 믿는 문화적 무정부주의의 사태가 도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게 된 원인이 외국에서 수입한 문학론의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되었건 제대로 된 적용의 결과이건 간에, 우리는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역사에 대한 방향 감각의 상실이라는 말기적 징후가 은폐되어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어떤 시대건 간에 당대의 문화 변모의 양상을 전(全) 방위적이지가 가장 예민한 입장으로 체현해내는 성감대가 곧 그

시대의 작가들이라는 점을 수긍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일부 젊은 작가들의 행태를 통해서, 자기 주장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신세대들의 잠복된 허무주의를 곧바로 들여다 보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신세대론 등장 의 원인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교육적 가치관의 변모를 들 수가 있다. 다른 모든 분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은 특히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토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분야일 터이다.

신세대 등장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적 가치관의 변모를 들 수 있다. 교육의 목표가 교양인 양성에서 전문인 양성이란 직업교육의 차원으로 그 인식이 변모되기 시작한 것이다. 80년대 젊은층들은 실제로 각 분야에 전문인이 되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우 6, 70년대의 그 높았던 전문적 기능인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의 경제수준과 생활여건의 현실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따라서 우리 교육의 보이지 않는 목표는 여전히 광범한 인문적 교양인 양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들을 규제하는 구세대적 혹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었고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신세대들이 자기들만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일한 탈출구는 신세대라는 이름으로 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일이었지만, 암묵적인 동의나 침묵 대신 자신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주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자기 희생과 도태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분명코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회적인 의미의 세대 의식은 개인적 존재 조건의 탐색으로부터 구성된 것이 아니라 소위 민중이라는 이름의 집단적인 삶의 조건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오늘날의 그것과는 유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는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그 전단계에는 그냥 목표에 불과했던 것들이 교육의 실질적인 도달치로 제시되었으며, 젊은층들은 실제로 각 분야의 전문인이 되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자연히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도덕적 덕목을 중시했던 교양인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전문적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교육의 차원으로 그 인식이 변모되기 시작했다.

거기다 새롭게 부상하는 전문 직종은 그냥 책이나 들여다보고 원리를 이해하거나 암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첨단적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기기를 다루지 않는 직종이라 해도 찾아진 외국과의 교류 때문에 외국어의 구사가 거의 기본기로 요구되면서 이러한 능력의 습득에 구세대 보다는 신세대가 보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한 젊은 전문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생활방식에서 사고방식까지가 구세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소위 여피족으로 불리는 이들은 문화생활에서나 물질적인 소비형태에서 새로운 물결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거개의 젊은이들이 이들의 생활방식을 뒤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육 목표의 변화라는 원인과 젊은 전문인의 배출이라는 결과는 공히 그들이 이룬 성과만큼의 역기능을 낳았다.

전자와 관련된 역기능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양 교육의 폭넓은 경험에 동한시됨으로써 야기된 이기적인 신세대의 사고방식이다. 필시 서구 시민사회를 지탱해온 개인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서 비롯되었을 이 이기주의의 폐해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행해버림으로써, 기존의 혹은 공공의 질서를 무시 내지는 파괴하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오늘날 직장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난다는 점이 그 좋은 예이다.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어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오늘날의 선진(?) 형태로 발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이기주의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필지일 것이다. 분명코 그 바탕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혹은 획득하려는 자유의지가 받치고 있지만, 서구인들은 그 자유를 방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의 자유를 구가한다는 기본 상식을, 우리 신세대들은 무시하거나 몰랐던 것이다.

교육목표의 변화와 젊은 전문인의 배출은 성과만큼 역기능도 가져왔다. 이기적인 신세대의 사고 방식과 과소비풍조 현상이다.

후자와 관련해 지적되어야 할 역기능은 과소비 풍조의 만연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오로지 여피족으로부터 비롯

된 것만은 아닐 터이고, 오히려 7, 80년대에 토지 투기를 통해 이 땅에 양산된 졸부들에게 보다 많은 책임이 돌려지겠지만, 그러한 소비 행태를 확산시키고 더더구나 젊은층의 기호를 인플레이션시킨 데에는 분명히 이들이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젊은층들이 즐겨 모이는 상가나 술집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 과소비 현상이 두드러지다는 점에 대한 책임의 많은 부분을 이들이 져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과 관련되면서 세번째 신세대의 부상 원인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이 대중 매체, 그 중에서도 TV의 역할일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 90년대에 20대를 맞고 있는 젊은이들은 70년대産이자 80년대를 틴에이지(teen-age)로 보낸 층이다. 70년대와 80년대가 어떤 시기였던가. 바로 70년대가, 비록 흑백이긴 하지만 텔레비전 문화가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 보급된 시기에 해당하면 80년대는 그것을 칼라로 즐긴 시대가 아니었던가. 그 시기를 유연과 소년기로 보낸 젊은층들이 텔레비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젊은이들의 최고 관심 직종이 연예인이나 기타 방송 관련 전문 직종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TV

를 제외하면 워낙 수용 기회가 전무했다거나 입시에 대한 부담이 과도했다거나 하는 다른 원인을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단지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하고, 젊은층들을 TV에 묶어둔 원인은 그 무엇보다 TV라는 매체를 통해 젊은층의 의식 각성을 막으려 했던 3S 정책¹⁾과 그것에 능동적으로 영합하면서 채워나갔던 매체 자신의 상업적 욕구에 놓인다.

다른 원인으로 대중 매체, 그 중에서도 TV의 역할일 것이다. 젊은층들을 TV에 묶어둔 원인은 그 무엇보다 젊은층의 의식각성을 막으려 했던 3S 정책과 그것에 능동적으로 영합하면서 채워나갔던 매체 자신의 상업적 욕구에 놓인다. 종국적으로 TV의 주 시청층이 10대로 굳어지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퍼뜨린 싸구려 문화가 신세대적이라는 관형어를 달고 우리 사회를 질주해 왔던 것이다.

방송의 공익성을 포기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건전한 시청자 층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적정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

1) Sports, Screen, Sex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규제 완화 또는 육성 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하여 소위 '3S 정책'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을 뿐, 공식화된 개념의 정부정책은 아니다.

은, 오락 기능의 극대화라는 상업적 방법 이외에는 없었고, 그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층들을 주시청자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나타났다.

모든 프로그램의 편성과 내용은 그들의 취향과 기호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젊은층의 관심은 나날이 증대해 갔던 것이다. 이 구조는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상과 같아서 교정 불가능한 형국으로 맞물려 돌아갔다. 종국적으로 TV의 주시청층이 10대로 굳어져버린 오늘날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성세대는 그들이 만든 구조 속에서 어린 그들의 자식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무라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급기야 '뉴 키즈 온 더 ब्ल록(New Kids on the Block)'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반성의 목소리들이 기성 세대 내부에서 잠시 들려오는 듯 했지만, 누가 과연 그 거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치차(齒車)를 멈출 수 있겠는가.

1990년대 들어서는 대중들의 가짜 영웅인 소위 '스타'라는 것조차 10대들이 독식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또한 각 일간 신문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신세대가 몰려온 다스니 어찌느니 하면서 몇주간에 걸쳐 전면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지만 그 역시 표피적이고 상업적인 대응 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바보 상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것이 퍼뜨린 싸구려 문화가 유행이라는 이름, 혹은 신세대적이라는 관형어를 달고 우리 사회를 질주해 왔던 것이다. 그 이름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수석어의 우산 아래 우리의 신세대는 어느덧 온 곳도 갈 곳도 잃어버린 채 우왕조왕하고 서 있었다.

올바른 신세대의 모습

그렇다면 시대의 올바른 신세대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선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부터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신세대가 신세대일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끝없는 자기 갱신을 위한 부정정신과 그것을 실천하는 도전 태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이 그것을 밑받침하는 일정한 이념적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구세대적인 모든 것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구세대로부터 비롯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극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의 가치를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곧바로 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그러한 사회 체계가 올바르게 발전할 리 없다. 발전은 커녕 유지 존속조

차도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청소년들의 폭력사건이나 성범죄의 증가는 바로 남의 가치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일 것이며 환각제 복용, 본드 흡입, 자살 등은 바로 극단적인 자기 가치의 상실에서 유래하는 사례들일 터이다.

우리의 신세대는 어느덧 우왕좌왕하게 서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금의 기성세대에 있다. 이제 기성세대들은 참으로 겸허하게 내부의 목소리와 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세대들은 구세대적인 것이 라면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철저한 부정 정신이 요구된다. 부정 정신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긍정으로 향한 것일 때 진가를 발휘하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신세대 부정정신의 가장 올바른 의미는 바로 변증법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먼저 치열한 자기 확신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기에게 남겨진 구세대의 유산 가운데서 정말로 인습적인 것, 도저히 신세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보다 나은 세대를 형성하고, 이 세대가 만든 틀은 다음 세

대에 의해 다시 지양됨으로써 우리 사회 자체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이면서도 사회학적인 세대론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일 터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 구세대들이 만든 가치관과 이념태들을 무조건적으로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기 삶의 진지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지성이라는 덕목이, 이윤 추구의 상업적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양산되고 그 원리에 다시 지배당하는 오늘날의 신세대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만약 이 시대 신세대의 삶이 진정으로 부박하고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도태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금의 기성세대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의 이 신세대론의 귀추는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역할 여하에 달려 있다.

해방과 전쟁이라는 악조건을 견뎌내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뛰어서 오늘날 이만큼의 생활 여건이라도 만들지 않았느냐고, 그런데도 젊은 놈들의 정신이 썩어빠져서 이 꼴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들은, 그 먹고사는 문제를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풀어내지 않고 편법과 술수를

동원하여 오로지 그것만에 매달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 아니던가.

이런 언술에 대해, 배가 고과되지 않아서 혹은 배가 부르니까 할 수 있는 소리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배가 한창 고프던 시절에도 배고픔의 해결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던 많은 목소리들을 바로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무시해 오지 않았던가.

이제 참으로 겸허하게 기성 세대들은 내부의 목소리와 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구미에 맞지 않고 듣기 싫더라도 끝까지 「하여가」²⁾를 들어보아야 한다. 관심을 가장한 질책만이 능사가 아니라 무관심했다는 것을 정말 솔직히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시 꾸짖어야 한다.

전세계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질서가 재편된다면, 무너지는 그것에만 손가락질하고 추스려서 이런 삶이라야 하지 않겠는가고 젊은이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진정한 대화란 전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의사를 전달할 때에나 가능하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온몸과 마음을 열어서 들어줄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때라야 신세대는 반

(反) 명제로서의 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구세대에 투사하는 순기능을 맡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세대들에게는 구세대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좀더 철저한 부정의 정신이 요구된다. 그러한 무조건적 부정은 진정한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 이유없는 반발이나 저항일 뿐이다. 부정 정신이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긍정으로 향한 것일 때 진가를 발휘하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삶을 대하는 치열성과 열정이 뒤따라야 하며 역사 발전에 대한 믿음, 삶의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및 전망이 무엇보다 먼저 요청된다. 가령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 꽃필 수 있는 후기 산업사회로 오인하는 몇몇의 신세대 작가 군상들의 경우에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들은 근간에 야기된 문학적 지도 이념의 혼란기 노동 문화 내지는 민중 문학권의 창작 침체를 빌미로, 이제 중요한 것, 고상한 것, 중심적인 것 등의 가치들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서 이 시대는 모든 가치의 상대주의와 사고의 다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리가

2) 「서태지와 아이들」의 1993년도 후반 히트곡

관철되는 후기 산업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들 주장에 따를진대 이제 우리 사회의 표층적 현상들을 규정하는 물적 토대는 더이상 생산력이 아니라 정보 혹은 기호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 포스터모던 작가들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금의 우리 사회가 서구적인 의미의 후기 산업사회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다. 후기는 커녕, 제대로된 의미의 산업 사회인지도 의심해볼 소지가 우리 사회에는 많기 때문이다.

혹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발달한 정보 통신망에 의해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주변 대 중심의 대립 구도가 사라지고, 서구 사회의 문화 향유 형태가 시간적인 지체나 변형없이 곧바로 우리 사회에서 유통됨으로써 각 지역의 문화가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관점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점의 다원주의란 각 지역 문화의 우수성이나 존재 의미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역산된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 자체를 그대로 서구의 후기 산업 사회 문화 이론에 반성없이 기댈으로써 노예는 노예일 뿐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헤겔식의 종속론을 증명한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의 현재는 결단코 서구적인

잣대로 잴 수 있는 평범한 단계가 아니다. 어떤 잣대로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념의 이항 대립이 사라지고 잊혀져도 우리에게서 여전히 현재형이다. 그렇다고 변화의 물결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한 변화를 축으로 우리 내부의 이념태를 재조정하고 조율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이제 정작 필요한 것은 신세대를 이해하고 발견하며 그들의 장점을 올바르게 이끌어내는 노력일 뿐이다. 세대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한 세대간 변증법으로 지양시켜야 한다.

분단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과제는 절대절명의 명제로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념의 이항 대립이 사라지고 잊혀져도, 우리에게서 여전히 현재형이다. 그렇다고 변화의 물결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한 변화를 축으로 우리 내부의 이념태를 재조정하고 조율하는 계기를 삼음으로써 보다 낙관적인 통일 전망을 수립해내야 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의 무책임과 신세대의 무관심이 문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무도 우리 역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비록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의 장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글이 의도적으로 문제삼고자 했던 신세대의 모습이란 거의 전적으로, 앞절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TV나 다른 매스컴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부풀려지고 부추겨진 것들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한편에서는 의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또다른 부류의 신세대들이, 스스로의 세대가 지닌 그런 맹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역사발전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더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우리는 「하역가」를 예로 들어야 하겠다. 그러한 노래도 존재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고 주의깊게 이 노래를 듣는다면 우리는 이 노래가 지닌 강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일부 가수들처럼 외국의 것을 그냥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주관과 개성을 쏟아부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자 노력한 왕성한 실험 정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위 손쉽게 판다라로 분류하여

무시해버리고 마는 대중가수들에게서조차 신세대로서의 은밀한 패기와 열정과 진지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데, 이 점에서 신세대에 보내는 기성세대의 우려가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정작 필요한 것은, 그들 신세대를 이해하고 발견하여 그들의 장점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노력일 뿐이다. 세대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한 세대간 변증법으로 지양시켜 우리 사회의 전망을 구체화하는 일, 거듭 말하지만 그것의 성공여부는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현장의 원인 제공자인 기성세대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는 진정한 아버지가 요청되는 시대이다. 7년만 지난 먼 2천년대다. 신세대의 21세기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